

한국학 진흥을 위한 기초 연구의 방향성 제고*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을 중심으로-

박종욱(한국외국어대학교)

김승기(한국외국어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 II.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 현황 및 문제점 인식
- III. 기초 연구의 방향성 제고의 필요성과 기초 연구의 방안 제시
- IV. 결론
- V. 참고문헌

I. 들어가는 말

국가 경쟁력이 최고의 화두가 되어버린 21세기,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 이미지 고양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을 해외에 널리 인식시키고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해외에서의 한국학 연구 진흥을 위한 기초 연구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학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낮은 발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지역별, 언어 문화권별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

* 이 논문은 2002년 학술 진흥 재단 인문 사회 분야 국내외 지역 연구비의 지원(KRF-2002-072-BS2562)을 받아 연구되었음

** Chong-Wook Park(주저자,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imon-park@hanmail.net)/Seung-Kee Kim(공동저자,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studio de las perspectivas para promover la infraestructura de los estudios sobre Corea.”

다. 미국 및 유럽 공동체, 그리고 최근의 동북아시아 중심의 정치, 경제 전반에 관한 관심은 여전히 스페인어 문화권이 주변적 관심의 대상으로 머물게 만들고 있다.¹⁾ 다른 언어 문화권과의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에²⁾ 대한 관심은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한국학 현황 분석 및 한국학 진흥책 관련 연구 또한 기초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머물고 있다.³⁾

본 연구 논문은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 진흥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초석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한국학의 위상과 문제점, 모델 안 개발 등과 같은 관련 연구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방향을 고찰하고 향후 연구의 기본 방향을 제안할 필요에 의해 계획되었다.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학의 객관적인 현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한국학 진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⁴⁾ 한국학 연구가 지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학을, 해외에서 한국학의 실태와 전망이라는 종합적이고 상대적인 시각으로, 살펴봄

-
- 1) 스페인과 중남미 대부분의 나라가 속한 스페인어 문화권은 지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매우 방대하며, 상용 인구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한국학은 정치, 경제, 외교, 통상, 문화, 학술 등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타 언어권에 대한 관심에 비교하여 스페인어 문화권에 대한 정부 및 기관, 단체의 현실적 관심은 매우 낮다. 특히, 최근 북방 외교 및 정책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중심의 불려 추진 경향은 중남미 국가 중심의 스페인어 문화권에 대한 관심을 더욱 소극적인 대상으로 파악하도록 만들고 있다.
 - 2) 본 연구 논문은 스페인어 문화권, 즉 스페인과 중남미 국가들에 있어서의 한국학을 구체적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종합적 시각에서의 한국학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은 본 연구의 범위가 되지 않는다.
 - 3) 영어 문화권은 범국가적 차원의 구체적 관심의 대상이므로,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과 경쟁적 시각에서 비교 대상이 되기 힘들지만, 러시아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에 대한 증폭되는 관심은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 문화권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선행 사례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 지역에서의 한국학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우리의 연구에 활용도가 높은 선행 자료로서의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다.
 - 4) 한국에 관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분야별 연구를 소프트웨어적 접근으로, 한국학 연구의 방향 및 전략적 경향 등을 하드웨어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면, 본 연구는 하드웨어적 접근 시각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으로써 해당 지역에서의 한국학 진흥을 위한 기초 연구가 어떠한 방향에서 추진되고 수행되어야 할 것인지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행 한국학 및 한국어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지적하는 한국학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 모델을 위한 ‘교사용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⁵⁾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학의 실제적인 문제점을 평가하며, 다음으로 해외 한국학의 선진 사례에 비추어 해당 지역에서 한국학 진흥을 위한 관련 연구의 방향을 지적하고,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자국학의 성공 사례인 일본학 및 중국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연구 방법 등을 지적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학 진흥을 위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한국학 진흥을 위한 모델 안 개발’ 연구의 초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 현황 및 문제점 인식

국제 사회에서 국가 이미지 증대의 필요성과 홍보의 당위성이 커지면서 더불어 한국학의 학문적 필요성 또한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5)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 교사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시행한 설문 조사이므로, 표본 집단이 극히 적다. 그러므로 설문 조사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통계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 자료 분석 연구’ 부분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국학의 현실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기에는 매우 귀중한 기초 자료의 의미를 지닌다. 설문 조사 양식은 논문 뒷부분에 첨부하였다.

II.1. 한국학 현황

한국학의 위상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정보의 수준과 비례한다. 선행 연구인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 이미지 및 한국학 관련 설문 분석 연구(박종욱 2003)’에서 밝혔듯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에 대한 종합적 이미지는 최근 한국에서 개최된 월드컵과 같은 국제 행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낮은 긍정적 지표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학의 진흥 정도와 관심은 더욱 소극적이고 낮은 수준이다.

스페인어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국을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수행되는 정기간행물 출판의 경우, KOREANA의 스페인어판이 유일하며, 한국 고유의 문화 및 예술, 문학 등을 90년부터 98년까지, 그리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출판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 기관 및 교육 기관에서의 한국학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 또한 열약할 수밖에 없다. 스페인 및 중남미 국가의 교육 기관에 대한 한국측의 지원 형태에 의한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강좌 및 연구 프로그램의 현황이 미미한 수준이다. 2002년 국제 교류 재단의 한국 연구 강좌 운영 지원 사업 수혜 기관 현황표에 의하면, 다섯 지역으로 분류된 해외 대상 지역 가운데, 중남미 지역이 4개로 되어 있을 뿐, 전체적인 안배의 측면에서 상대적인 불균형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2002년 한국 연구 강좌 운영 지원의 경우에 스페인의 Salamanca 대학교와 Barcelona 대학교가 포함되어 있으나, 교수직 지원의 사례는 없다.⁷⁾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 연구

6) 미주 지역은 29개, 유럽 지역은 23개, 대양주 3개, 아시아/중동 지역은 14개, 중남미 지역은 4개로 총 73개 지역 가운데 4개 지역에 지원되었으며, 지원 기관은 멕시코의 Colegio de México와 Universidad Nacional de Autónoma de México, 아르헨티나의 Universidad Nacional de Córdoba와 파라과이의 Universidad Nacional de Asunción이다.

7) 스페인 살라망카 대학의 경우는 스페인어 문화권 대학 및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2003년 한국어 교재 개발 지원 수혜를 받았다.

기관으로서 Colegio de México(이하 Colmex)가 있다. 시민 전쟁 직후 멕시코로 망명한 스페인 출신 학자들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최고급 엘리트 양성을 위한 대학원 전문 고등 학술 연구 기관으로 출발한 Colmex는 한국과 멕시코 양국의 대외 다변화 정책의 흐름 아래 한국 국제 교류 재단과의 협조에 의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학 연구 센터의 대학원 석사 과정에 독립 학과를 개설하였다(김형주 2001). 그러나, Colmex에서의 한국학 연구 및 교육 현황은 한국학의 진흥이라는 궁극적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⁸⁾ 중남미 전역에 부분적으로 산재한 한국 관련 연구자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인 학술 대회와 출판물의 제작 및 보급이라는 차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제반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며, 주관 단체의 성격을 알리고 의도를 소개하는 형식의 행사성 모임 및 대회가 주된 학술 활동에 머무르고 있다. 중남미에서 한국학 보급의 문제는 한국에 대한 국가 인식도 및 이미지와의 관계의 측면에서 다뤄져야 하는 주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원과 정책이 일회성인 행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초보적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학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는 한국인 파견 방식이 아닌, 현지 국가의 한국 학자 양성 및 개발이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 교류 재단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외국의 석사 및 박사 과정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 학생을 한국어 및 한국학 분야로 유치하고 전문 학자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제도의 혜택은 스페인어 문화권에서는 전혀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최근 중국에서 한국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국에서는 학부생을 포함하는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스페인어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그 수혜자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제도적 장치

8) Colmex에서의 한국학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2.2. 문제점 인식과 전망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교육 종사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로 정착되지 못한 채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⁹⁾

한국에 대한 스페인어 문화권 측면에서의 주체적인 관심이 부족하다면, 한국측에서 해당 문화권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 및 홍보 정책을 펼쳐야 하고, 무엇보다도 한국학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만석과 이길상은(1999, 3) 한국에서 한국학 인재 양성이 소홀하게 취급되어 온 가장 큰 이유로 경제 발전 논리에 의한 서구 중심적 사고의 만연과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기 비하적 인식을 들었으며, 한국학의 용어 및 범위에 대한 학계의 이견과 갈등을 지적하고 있다.¹⁰⁾ 한국학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과 학문 분과간의 대립 및 갈등이 한국학을 좁은 의미의 국학으로 보느냐, 또는 한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관련된 모든 학문으로 넓게 보느냐, 그리고 이의 접근에 있어서 전통적인 인문과학적 방법과 서구의 보편적인 사회과학적 방법간의 일련의 갈등이 한국학의 중요성과 육성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한국학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대학원으로 설립된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한국학 대학원이 학문적 지도력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의 한국학에 대한 소홀한 배려와 소극적인 관심은 해외

9) 2003년 계획에 북미 20명, 서남북 유럽 20명, 구 동구권 64명, 아시아 51명으로 되어있다. 미래의 한국 학자 양성을 위한 관심은 매우 중요한 한국학 진흥을 위한 기초 장치이다. 그러나, 국가기관 차원의 지원은 없으며, 대학 차원에서의 개별적 관심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일례로 단국대학교의 경우, 교환 학생들을 장차 한국학 전공자로 유도하기 위한 학교 차원에서 배려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로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10) 한국학의 개념과 용어 및 범위에 대한 보편적인 정리는 지금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한국학의 기원과 범주에 관한 내용은 이우성/정창열을 참조하고(1981, 8-22), 한국학의 국제적 용어로서의 Korean Studies와 그 번역의 문제를 둘러싼, 한국학의 개념 정립에 관한 내용은 “한국학이란 무엇인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게시판, 3303 번 글을 참조. 그러나, 종합적인 의미에서의 한국학의 기원과 용어 및 범위, 그리고 한국학의 현황에 이르는 연구는 이해경(1994)을 참조할 것.

한국학자의 양성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스페인어 문화권에서는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학 관련 학자의 수는 크게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동양 혹은 아시아 관련 연구를 하던 중 확대된 연구 영역의 한 부분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연구의 심도가 낮은 것은 물론이고 관심 영역 또한 경제와 정치 중심의 제한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다.¹¹⁾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학의 현황은 이처럼 포괄적 시각에서 볼 때 열악하다 할 수 있으며, 발전 및 진흥을 위해서는 한국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당사자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배경으로 한국학에 대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

II.2. 문제점 인식과 전망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교육/연구에 관련된 연구와 기고문이 산발적으로 발표된 적은 있었지만, 종합적 시각에서 한국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는 없었다. 해당 지역에서 한국학이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은 미약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이는 한국학 진흥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한국학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채, 한국학의 진흥을 계획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먼저, 해당 지역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 및 연구자들이 실감하고 지적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인식과 전망은 기초 연구의 방향성 고찰과 형

11) 한국학 관련 연구자 및 연구 성과는 민원정(2003) 을 참조할 것.

성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 작업으로 실시한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교육 종사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¹²⁾의 결과와 선행 연구 설문 조사 서술형 B형의 결과를 통해 한국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인식과 전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인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 정립을 위한 한국 관련 기초 자료의 조사·분석’을 위해 실시했던 서술식 설문 조사 B형의 분석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교재의 부족, 교사의 부족 및 전문성 결여, 재교육의 필요성, 호환 프로그램의 부족, 체계적인 지원책의 필요성 등이다(박종욱, 2003). 특히, 교재의 경우에는 스페인어로 제작된 한국어 및 한국학 교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스페인어 문화권 사람들의 학습 효과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문화적 공감대를 유도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사의 부족 및 교사의 전문성 결여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적 보상이 거의 없이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공급이란 불가능한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재교육을 비롯하여 학생들에게 호환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현실적으로 요원한 바램으로 남겨져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한국학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한국 정부 및 기관과 단체 측에 그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의 지적도 산발적일 뿐 아니라, 일회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점에 대한 낮은 인식은 문제점 극복을 위한 통일된 방향성의 결여를 낳아, 결국 문제점 극복을 위한 산발적인 노력들이

12) 설문 조사 양식은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한국어로 제작되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연구자의 숫자가 지극히 제한되어있으므로, 표본 집단의 수가 적어서 통계 자료로서의 객관적이고 축적된 지표가 되기에는 미약하므로, 본 장에서는 설문 분석 통계를 제외한다. 설문 양식은 본문 뒤에 부록으로 실는다.

결집된 힘을 잃은 채 제도적 장치로 축적되지 못하고 소멸되도록 유도될 뿐이다.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교육/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에서의 설문 결과는 한국학의 현황이 얼마나 열악한 지 잘 반영하고 있다. 페루 프루히요 국립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의 경우 열악한 상황에서 한국어 교수자의 어려운 처지를 잘 파악하게 한다. 조사 대상 교육 기관의 일반 현황 항목에서 전체 학생의 수가 10,000 명이며, 외국어 전공 학생은 3%인 300명 가량이다. 필수인 영어를 제외한 7개 외국어 13 가운데 복수 수강이 가능하므로, 전체 외국어 수강 학생 700 여명 가운데 20 여명이 한국어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에는 전공 및 부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이 없을 뿐 아니라, 한국 기관과의 교류도 전무하다. 한국어 수강 기간은 대부분이 초급 단계인 1년 이하이다. 담당 교원은 1명이지만, 학생 모집 자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유일한 한국어 담당 교원 스스로 스페인어 문화권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에 맞는 특별한 교수법 및 한국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교수법을 터득하는 것 이외에 효율적인 방법이 부재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어 교재에 대한 인식은 교재 개발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을 느끼지만, 현실적인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14, 한국어 교수시 애로 사항으로 ‘ㅈ’ 발음과 ‘ㄴ’ 발음, 쌍으로 나는 소리 값 ‘ㄱ’, ‘ㄷ’, ‘ㅃ’, ‘ㅆ’, ‘ㅉ’의 발음과 같은 발음의 문제, 조사의 사용 및 구분과 같은 문법적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실생활에서 필요한 회화 교육을 위한 적절한 교육 방법에 어려움이 지적되

-
- 13) 필수 외국어인 영어 이외의 외국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케추아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일본어와 한국어가 개설되어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전공 학과가 없기 때문에, 학점 인정이 되지 않는 예외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다른 외국어와 실질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 14) 우리나라의 문화와 산야를 소개할 수 있는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제작된 교재용 비디오와 한글 자모음과 단어 및 문장을 전문가가 녹음한 발음 테이프 등의 자료를 찾을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학 지원의 제도적 장치가 없거나 형식에 그친다¹⁵⁾라는 아쉬움보다 더욱 근본적으로 중요한 점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한국어를 배워도 이용할 기회가 없어서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 유발에 어려움이 많음을 지적하였다.¹⁶⁾ 이러한 점은 설령 본국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의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도,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력에 의한 장치로 확장되지 않으면 그 지속력에 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학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국가 및 민간 지원 포함)을 일본의 Japan Foundation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¹⁷⁾

스페인어 문화권의 다른 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교육/연구의 현황은 위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교육/연구가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제일이라는 Colmex의 경우 외형적 현황은 긍정적이다. 아시아-아프리카 연구소의 전체 학생수는 320명으로 전체 교원 200명과 비교하여, 최고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개설된 외국어는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등 총 8개에 이른다. 한국어 강좌 수는 4개이며, 모두 학점으로 인정되는 강좌이고, 한국어 회화, 한국어 작문, 한국어 문법, 한국어 시창각이다. 교원의 숫자도 2명에 이른다. 18

-
- 15) 한국학 진흥을 위한 연구비 지원이나 한국어 강좌 지원은 스페인어 문화권 전역에 걸쳐 소수의 제한된 교육 단체에 국한되고 있으며, 페루의 경우에는 다른 많은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에서처럼 전혀 지원의 혜택이 없었다.
- 16) 한국 기업체에 취업한 인원이거나 한국 관련 스페인어권 기업에 취업한 인원이 수년간 한 명도 배출되지 못했다는 사실 또한 학생들에게 학습의 동기 유발이 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 17) 프루히요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해당 항목의 설문 조사에서 “이곳 프루히요 국립 대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는 페루 사람으로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서적과 기타 자료 등이 꾸준히 지원되고 있으며, 일본에서 어학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지속적이고 우선적으로 주어짐으로써, 일본어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강좌의 경우, 현지인 교사는 아예 없으며, 한국어 진흥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이카에서 단원을 파견하고 단원을 통하여 서적과 같은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 18) 그러나, 교원 선발의 경우 현실적으로 일부 교원의 임금을 한국 정부에서

한국어는 전공 및 부전공으로 개설이 되어 있으며, 한국 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한국 기관과의 교류 프로그램도 개설되어 있다. 한국 기업체에 취업한 인원도 있으며, 한국 관련 스페인어권 기업에 취업한 인원도 있다. 형식적으로는 크게 다른 지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의 숫자는 4개의 교과목에 각각 1명씩이며, 취업 인원도 각 1명으로 내실이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한국어 교재와 교수시 애로 사항에 대한 견해는 스페인어 문화권에 적합한 교재의 개발의 부족과 발음 및 문법 설명의 어려움을 들어, 뜨루히요 대학교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비슷한 애로 사항이 지적되었다. 한국학의 연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학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강의 및 연구가 진행되어야 실질적인 한국학의 교육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학 관련 교과목의 신설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현실적으로 전공 신청자의 부족으로 관련 교과목을 신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학 연구를 위한 자료에 대한 질문 항목에 대해서는 ‘중남미 대학 중 가장 많은 자료를 보유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학 진흥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생 모집과 자질 있는 교원의 확보, 그리고 이를 위한 집행 가능한 예산의 확보 문제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학 진흥을 위한 한국의 지원책(국가 및 민간 지원 포함)은 인접 국가인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¹⁹⁾, 한국의 지원책에 대해 동양학 연구소가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조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²⁰⁾

Colmex를 통해 지원하는 형식이므로, 결국 한국인의 해당 해외 지역 파견 형식이어서, 장기적인 의미에서의 교육 및 연구 단체 소속의 교원직 확보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19) Colmex의 한국어 교육 담당자는 “한국학 보급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에 있어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변화된 (긍정적인 면) 모습이 보여줌. 그러나 일본의 지원 정책과 비교하기에는 너무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개괄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20) Colmex의 한국어 교육 담당자는 “중남미권 대학 재정 형편상 한국 정부 및 민

앞에서 살펴본 두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파악된 문제점 분석만으로 향후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 진흥을 위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전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학이 초보적 수준이어서 현황 및 문제점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연구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을 문제점까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권별 한국학의 현황에 있어서 스페인어 문화권보다 앞서 있는 러시아 문화권에서의 한국학 진흥에 있어서 도출되는 문제점 인식을 위한 노력이나 관련 연구의 방향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와 축적된 노하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에서의 한국학은 넓은 의미에서 15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갖고 있다(김현택 1999a, 1). 물론, 한국과 러시아가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본격적 의미에서 한국학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90년대 이전 구 소련의 입장에서는 공백 상태였던 한국 사회에 대한 연구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김현택 1999a, 32). 왜곡된 채 제한적인 영역에서의 연구만 진행되던 한국학이 진흥을 맞이하면서, 겪은 외형적 변화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과거 개인 위주로 진행되었던 연구가 몇몇 연구소 또는 연구 집단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특정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이 가능해졌고, 전문가들 사이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였다. 둘째, 한국 체류 경험을 갖거나 현지 연구를 실시해 본 러시아 학자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과거의 이론적이고 거시적인 조망보다는 섬세하고 실증적인 조망이 가능해졌

간 단체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필수 사항이다. 그러나,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 기존에 동양학 연구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 [동양학 연구소가 없는] 경우 실질적 연구 및 강의가 거의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라고 동양학 연구소의 존재를 한국학 교육 및 연구 센터의 설립 지원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연구가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연구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기초 연구의 방향을 재고하는 데에도 이러한 사항이 예측 가능한 변수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²¹⁾

한국학은 한국을 연구하는 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한국학 이외의 학문을 수행하는 연구자들과의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교류가 없이는 발전과 진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오만석/이길상 1999) 염두에 두고, 자국학의 선진 사례들을 분석하여, 제도적 장치 차원에서의 지원 정책 재고의 필요성을 비롯한 많은 노력은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학의 진흥을 위해 효율적인 기초 연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기초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기본 틀이라는 의미에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III. 기초 연구의 방향성 재고의 필요성과 기초 연구의 방안 제시

III.1. 기초 연구의 통일된 방향성 재고의 필요성 인식

21세기는 흔히 문화의 세기라 한다. 각국은 자신들의 국가 이미지 재고를 위해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언어 및 문화, 그리고, 관련 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정부, 기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그 지원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연구를 경주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전통적 의미의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발

21) 러시아에서는 한국학의 열기가 증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실용 연구로의 전환에 있었으며, 이론 연구의 비중이 커지면 그만큼 한국학 일반에 관한 관심도 저하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학 연구의 방향을 정립하고 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한국학 기초 연구의 기본 방향 또한 실증적인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전이라는 기존의 패턴을 벗어나, 자국의 독창적인 문화를 산업과 접목시켜 상품화하고, 외국인의 관심을 끌어 관광을 진흥시킴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복합적 경쟁 체제로 진입한 국제 관계에서 이미지 향상은 학술적으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주요 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알리고 향상시키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한국학 실태 향상을 위한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을 해외에 널리 인식시키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학 진흥 및 홍보가 특별한 수행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한국에 대한 연구는 80년대부터 정부 및 공공 기관과 민간 단체의 지원으로 점진적인 발전을 이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경쟁국과 비교해 볼 때, 그 위상은 낮은 편이다. 중국과 일본이 일찍부터 서구 세계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점과 비교하여,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국이 현재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인 위치에 견주어본다면, 한국학 연구는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있다. 특히, 발전 단계에 있는 한국학이 지역별, 언어권별로 편중된 현상은 한국학이 직면한 문제를 어떠한 시각에서 어떠한 틀로 풀어가야 할 것인지 근본적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서구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에 대한 연구는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영미 문화권, 프랑스, 독일에서의 한국학과 비교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스페인과 중남미 대부분 국가가 속해있는 스페인어 문화권은 지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매우 방대하며, 상용 인구라는 측면에서도 타 언어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의 한국학은 정치·경제·외교·통상·문화·학술 등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 그러므로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 진흥을 위한 기초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여, 기본적인 연구 모델 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의 한국학 연구는 산발

적이거나 지나치게 일반적이어서 구체적인 한국학의 시스템으로 정착하기에 미흡하므로, 한국학 진흥을 위한 기초 연구의 기본 방향이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 방향의 정립은 후속 연구들이 체계적이며,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꾸준한 축적된 정보 및 연구로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한국학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비롯한 기본틀 강화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학 진흥을 위한 관련 연구의 방향성 제고는 해당 지역에서 한국학의 상대적 위상 분석 및 평가와 한국학 통합형 시스템 모델 구축이라는 목적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연구 지향점을 설정할 수 있다:

- 1) 해외 한국학의 지역별·언어권별 현황 조사·분석
- 2) 해외 한국학 선진 모델 사례 분석
- 3)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동아시아학 모델 분석

항목 1)에서는 한국학의 현황을 지역과 언어권별로 살펴봄으로써,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학의 객관적인 위상을 일별할 수 있는 연구 목적을 지닌다. 항목 2)에서는 한국학의 선진 모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학 통합형 시스템 모델 안 제시를 위한 모범 샘플 분석을 연구 수행의 구체적인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연구 수행의 대상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를 들 수 있으며, 콜롬비아 대학이나 파리 7 대학과 같은 상대적으로 한국어 교육의 체계와 한국학 관련 학문의 고급화 수준의 정도에 따른 몇몇 대학 및 기관을 선진 사례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항목 3)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한국학의 현실적인 경쟁인 동아시아학, 특히 일본학과 중국학의 위상을 분석하고, 그 체계와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 첫째, 현지에서의 일본 및 중국의 이미지 조사와 분석을 수행한다. 둘째, 각국의 언어 교육 체계 및 일본학과 중국학의 현황을 파악한다. 셋째, 일본학과 중국학의 발전을 위한 각국의 전략적 방안 분석을 수행한다. 위의 세 항목의

연구는 결국 한국학의 상대적 위상 분석 및 평가와 한국학 통합형 시스템 모델 안 제시라는 상위의 연구를 위한 하위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II.2. 기초 연구의 방안 제시

III.2.1 해외 한국학의 지역별 · 언어권별 현황 조사 · 분석

한국학이 해외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현황을 지역별, 언어권별 기본 지표 및 선행 연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스페인어 문화권에 있어 한국학의 객관적 위상을 파악하며,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기관에 대한 조사 ·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지역은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로 나누며, 언어는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으로 나누어 조사한다.²²⁾

이 작업은 한국학에 관한 현행 연구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한국의 정부 기관이나 학술 단체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던 한국학 지원 체계 및 그 현황을 인식해 봄으로써 선진 모델의 추출과 함께 스페인어 문화권에 접목시킬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 연구 과정은 선진 모델 사례의 선정과 스페인어 문화권에 적용될 만한 요소를 추출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연구의 분산 효과를 최대한 억제하고, 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객관적 신뢰 기관의 지표 및 자료, 연구 결과의 기초 자료로서의 이러한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다만, 현 연구의 목적과 논리적 타당성과의 밀접한 연계를 염두에 둔 자료 활용 및 의미 분석이 될 수 있기 위한 객관적 기준 안을 분명하게 제시하며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의 방법론을 확실하게 할 것

22) 이 과정에서 연구의 불합리한 중복과 낭비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 결과와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평가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다.²³⁾

III.2.2. 해외 한국학의 선진 모델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해외 지역에서 한국학이 비교적 정착되고 지속적인 성장 단계에 접어들어 운영되고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선진 모델 사례를 분석한다. 해외의 선진 모델로는 미국과 유럽의 해당 대학들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 운영 시스템, 지원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규명해보고 각각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학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요인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정부 기관이나 학술 단체가 주도하는 지원 체계에 의해 해외 현지의 한국학이 지속적인 성장 단계를 보이고 있음에 주목하여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스페인어 문화권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모델 안의 제시에 목표를 둔다.

해외 현지에서 한국학의 초기 전개 과정으로부터 정착 단계를 거쳐 지속적인 운영 시스템이 구축되고 활성화되기까지의 단계별 요인과 함께 핵심적 요소를 분석해 봄으로써,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학의 진흥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모델 안의 개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어 교육의 실상과 함께 한국학 관련 강좌나 교수진의 현황, 운영 시스템, 지원 체계에 초점을 두고 수행된다. 특히 북미, 유럽 소재 대학들이나 연구 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의 바람직한 모델 개발 및 방안의 제시를 위한 시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 연구 센터나 한국학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개별 선진 모델의 특성, 운영 시스템의 효

23) 이를 위해 기존 연구 자료의 활용을 위한 대상은 한국학을 장려하는 정부 기관들, 특히 한국 학술 진흥 재단, 한국 국제 교류 재단,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등에서 나온 신뢰할 만한 자료, 간행물, 통계 수치에 한정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울성 등을 살펴보고 모든 연구 사례에 통용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분석해냄으로써, 스페인어 사용 지역의 한국학을 진흥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를 추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구 대상으로 콜롬비아 대학, 버클리 대학, 하와이 대학, 하버드 대학 등에서 한국학이 차지하는 위상과 함께 긍정적인 측면을 발췌·조명해 봄으로써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 진흥을 위한 적절한 모델 방안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유럽의 경우 역시 한국학과나 한국 관련 연구소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으로 한국학과가 설치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의 파리 7대학, 한국사 비교학 연구소가 있는 이태리의 시에나 대학, 한국 연구 센터가 있는 영국의 런던 대학교 동양·아프리카 대학, 러시아의 모스크바 대학 등을 살펴본다. 각각의 선진 모델 사례에 대한 특성 연구와 더불어 그들의 바람직한 운영 체계와 구체적인 성공 요인을 분석하여 스페인어 문화권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²⁵⁾ 특히 러시아어권에서 한국어의 형성과 문제점의 인식, 그리고 진흥을 위한 기초 연구들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은 실질적인 긍정적 자료가 될 것이다.

24) 한국 연구 센터 또는 한국학 연구소의 형태로서 연구가 이뤄지는 곳은 콜롬비아 대학, 하버드 대학, 노스팍 대학, 하와이 대학, UC 버클리, UCLA, USC, 펜실베이니아 대학이다. 1994년에 구성된 북미 지역 한국학 도서관 특화 컨소시엄은 이 지역의 한국학 도서 자료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9개 대학 도서관의 컨소시엄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이 결과로 1997년에 컨소시엄 회원 대학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학 자료는 36만 5천 권에 이르러 북미 지역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학 자료의 51%에 해당한다. 또한 버클리 대학교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컨소시엄 홍보와 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5) 파리 7대학은 완벽한 학사 과정과 더불어 광대하고도 체계적인 도서 목록을 구비하고 있다. 한국학과는 기초 교양 과정을 비롯하여,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이르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동양학부의 타 학과에 비해 석사 및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많아 상대적으로 우수한 자질을 갖춘 한국학 전문가를 양성한다. 1992년에 개관된 파리 7대학교 한국학 도서관은 각 분야의 장서 2만 5천 여권을 갖추고 있어 한국학 학자들과 학생들에게 자료를 제공한다. 파리 7대학의 설립 및 발전 과정과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은 최승언(1999)과 김정아(2003)을 참조할 것.

연구의 방법과 내용을 위해 위 교육 및 연구 기관들에서의 한국어 교육, 한국학과 관련된 운영 시스템,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각각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들에 대한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정부 기관이나 학술 단체를 통하여 실행되어 왔던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의 결실과 그 성공 요인을 기술함에 있어서는 귀납적 측면을 도입하여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게 제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I.3.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동아시아학 모델 분석

해당 지역에서 한국학에 견주어 더욱 활성화된 면모를 보이는 동아시아학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 연구하여 한국학 진흥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학 및 중국학을 선정하여 이들 국가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도 자체를 조사, 분석하고 특히 한국학의 진흥에 필수적 요소가 될 만한 긍정적 측면을 도출해 본다.²⁶⁾ 한국학에 비해 더욱 체계적이고 발전된 면모를 보여주는 일본학과 중국학의 모범 사례를 비교 검증해 봄으로써 객관성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의 상대적 비교와 한국에 관한 소개 및 국가 이미지의 현황 파악, 민관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의 객관적 현황, 현행 운영 시

26) 일본과 중국의 국가 이미지 조사·분석을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선진 모델이 되어, 우리의 한국학 진흥을 위한 모델 분석 대상이 되기 때문이며, 중국의 경우에는 유구한 역사를 배경으로 최근 대외 개방을 펼쳐가며 아시아의 맹주로 재등장하는 국가 이미지에 대한 한국과의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이미지 조사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스페인어로 작성된 설문을 통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게 될 것이며,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50개 이상의 항목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A형과 일본어/일본학 혹은 중국어/중국학 관련 학생 및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B형으로 나눠 진행될 것이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의 실시한 한국의 이미지와 인식 지표, 한국어 및 한국학에 관련된 기초 설문 조사(박종욱, 2003)의 연구 결과와 비교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스텝의 문제점 등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²⁷⁾

또한 전세계에 일본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외에 소재한 대학과 연구소에 효율적인 후원과 함께 바람직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 국제 교류 재단(Japan Foundation)의 경우와 민간 기업과 단체의 일본학 지원책의 현황 조사를 통하여, 한국학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점검해보고 모델 방안의 한 지표로 설정한다.

한국, 일본, 중국은 아시아의 극동 지역에 인접해 있으며, 서구인들이 보기에 거의 동일한 문화권에 속해 있다. 중국은 장구한 역사를 지닌 인구 대국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게 오랜 동안 동아시아의 맹주 역할을 담당해 왔다.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차지하는 중국학의 위상 또한 동아시아를 대표해왔던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 엄청난 분량의 문화 유산, 세계 각지에 산재해 있는 화교 인구와 자본력, 서구인들에 의해 무수히 발간된 중국 관련 서적의 유입 등으로 인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일본은 3국 중 가장 근대화가 빨랐으며 막강한 후원 체계와 함께 지속적인 효과가 돋보이는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스페인어권 중남미에서 괄목할 만한 정치·경제적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페루의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경우가 극명하게 보여 주듯,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일본의 위상은 아주 고조되어 있으며, 한국학의 바람직한 위상 정립과 진흥을 위한 적절한 모델 안의 개발 연구에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본다.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일본학과 중국학을 다루는 연구는 이제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 지역에서 한국학을 진흥시키고 지속적인 성장 체계로 이끌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으로 사료된다. 북미 지역의 경우, 일본학과 중국학의 자료 총량은 한국학에

27) 특히, 해외 지역에서 한국학의 경쟁 모델인 일본학이 현지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멕시코의 Colegio de México와 페루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동양학 연구소, 스페인의 Madrid Autónoma 대학교와 Salamanca 대학교를 구체적 현황 파악의 대상으로 삼아 한국학의 현황과의 비교 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지표와 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비해 각각 최소 6배·10배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학 자료의 양적 성장과 함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 방안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수행하고 있는 자국학의 운영 시스템을 분석하고 그들 정부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민간 기업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구축되어 온 지원 체계를 전략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운영 시스템의 측면에서 일본학과 중국학이 갖추고 있는 장점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일본 및 중국에 대한 관련 제도 분석을 위해서는 언어 교육과 관련 학문으로 나누어 연구와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언어 교육 전문 기관의 현황 및 언어 교육 교수자들의 자질과 형성에 관한 현지와 본국에서의 지원책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다. 또한 교재 개발의 보편적 경로 및 일반적 교육 정도에 대한 내용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²⁸⁾

학문 교류 현황은 광범위한 시각에서 일본학 및 중국학의 전반적인 위상과 관련 서적의 출판, 번역, 보급 등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COLEGIO DE MEXICO와 같은 기관에서 일본학과 중국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해당 학문 및 언어 교육 교수자 집단의 전문성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학문적 노력이 서적의 개발과 번역 등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학과 중국학의 경우에 있어 전략적 측면에서의 진흥책을 체계적 분석에 의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 공공 기관 및 민간 단체 등이 자국의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행하는 지원책을 조

28) 연구 대상으로는 멕시코의 Colegio de México, 페루의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스페인의 Madrid Autónoma 대학교, 스페인의 Salamanca 대학교를 설정한다. Colegio de México는 아시아 아프리카 연구센터 (Centro de Estudios de Asia y Africa)를 중심으로 일본학과 중국학을 활발하게 전개시켜 왔다. 페루의 카톨릭 대학 역시 동양학 연구소(Centro de Estudios Orientales)를 중심으로 일본학과 중국학이 활성화되어 있다. Madrid Autónoma 대학은 아시아권, 특히 중국학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곳이며, 살라망카 대학교에는 일본학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강세를 보인다.

사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국가 이미지 향상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자국을 알리는 본국에서의 홍보를 위한 지원책과 현지인 및 교민 대상의 국가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책의 계통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서 민관 합동에 의해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현실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 체계 방안을 모색한다. 곧 효율성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한국학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학의 보급과 확산에 커다란 공헌을 해왔던 일본 국제 교류 재단(Japan Foundation)의 지원 체계를 심층 분석하여 연구의 기본 토대로 활용한다.

III.4.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학의 상대적 위상 분석 및 평가

한국학의 위상을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몇몇 관점으로부터 그 낙후된 현황에 접할 수 있다. 곧 1988년의 서울 올림픽과 2002년의 월드컵을 인상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좀더 고양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가 이미지,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에 관련된 현행 운영 체계의 문제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의 부족, 연구 지원금과 그 성과물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 지속적인 연구 발전을 위한 통합 시스템의 부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지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중국의 국가에 관한 이미지와 자국학의 현황을 상대적 관점에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스페인어 문화권에 소개된 관련 출판물의 대략적인 현황에 대한 지표 조사와 함께 한국학을 일본학, 중국학에 견주어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학 진흥을 위한 구체적 요소로 삼을 수 있다.

일본학, 중국학과의 상대적 위상의 차이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이러한 지표 연구를 통해 기본적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사회 전체, 문화계 전반에 걸쳐 분석

하고 비판적인 견지에서 평가가 필요하다. 민간, 정부 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하여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학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비판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현행 지원 체계를 분석하고 효율성의 제고를 기초로 하여 문제점을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비현실적이고 산발적인 지원 체계, 지원금과 성과물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 지속적인 연구 발전을 위한 통합 시스템의 부재 등이 시급히 극복해야 할 논제로 대두되리라 본다.

앞에서 살펴본 기초 연구의 방향은 결국 한국학 통합형 시스템 모델의 필요성 인식과 모델 안의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한다. 먼저, 한국학에 대한 기초 자료의 구축이 시행되고, 미국, 유럽의 해외 한국학의 선진 모델과 함께 스페인어 사용 지역의 일본학, 중국학의 바람직한 모델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한국학을 비판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향후 통합형 시스템 모델 안의 구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III.5.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 통합형 시스템 모델 안의 필요성

한국학 진흥을 위해 현실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 체계 방안과 유효 적절한 운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에 관한 국가 이미지의 고양, 객관적이고 능률적인 한국어 교육, 한국 문학과 문화에 관련된 번역 출판물의 발간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에 의해 한국학을 올곧게 발전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프로그램과 더불어 운영 시스템의 전반에 걸쳐 입체 관리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된다.

한국학 통합형 시스템 모델 안에는 해외 한국학의 모범 사례로 살펴본 미국과 유럽의 경우와 함께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학이 지향할 수 있는 일본학, 중국학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와 성공 요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와 기관 중심으로 이

루어지는 지원 체계의 통합 운용의 필요성, 해외 현지에서의 한국학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의 필요성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통합형 시스템의 구축과 그에 따른 모델 안의 제시는 스페인어 문화권의 일본학, 중국학 사례와 비 스페인어 문화권의 한국학 모델 유형을 합리적으로 규명하여 한국학의 올바른 지향점을 추구하는 과업으로서 연구 역량을 진작시키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듯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 진흥을 위한 모델 안 개발 연구는 그 자체가 지니는 당위성과 함께 연구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 기대치와 함께 학문의 파급 효과를 한층 더 높여줄 수 있다.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학이 현실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한국 기관 및 정부측의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을 위한 지원 체계를 분석한 결과로서 지원의 효율적인 체계화 방안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 교육이 현실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등의 경우에는 한국어 및 한국학을 위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며, 현실적으로 한국어의 필요성이 극히 낮은 지역에서는 형식적인 연구를 수행하거나 비효율적인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혹은 기관에게 부적절하게 정부 및 기관 단체의 지원금이 지출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통합형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형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연구는 현재 산발적이며 비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지원 체계를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진흥을 위한 장기적 마스터 플랜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IV. 결론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한국학 진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국가 이미지의 고양, 객관

적이고 능률적인 한국어 교육, 한국 문학과 문화에 관련된 번역 출판물의 발간, 효율적인 지원 체계 등과 같은 세부 발전 목표를 위해서는 한국학 연구의 방향을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학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인식하며, 한국학 진흥을 위한 통합형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일련의 한국학 진흥을 위한 제반 연구 및 정책에 대한 방향성 제고는 향후 효율적인 기초 연구를 유도하고, 한국학의 진흥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의 성과물로 기대되는 장기적 마스터 플랜에 의해 한국학을 올곧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기초 연구의 통일된 방향이 정착되어야 한다. 해외 한국학의 선진 모델 사례로 살펴본 미국과 유럽의 경우와 함께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학이 지향할 수 있는 일본학, 중국학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와 성공 요인 등에 대한 분석은 기초 연구의 근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한다. 러시아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의 경우는 일천한 스페인어 문화권 한국학의 구체적인 선진 사례가 될 것이므로, 실패와 성공 사례가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기관 및 민간 단체의 지원 정책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자국학의 선진 사례인 동아시아, 특히 일본학의 경우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등,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의 진흥을 위한 한국학 연구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야 한다.

<부록>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교육 종사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 정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조사·분석’의 연구를 위한 기초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 설문 조사는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교육 종사자 및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설문 조사는 스페인어권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학의 진흥을 위한 연구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시아 아메리카 문제 연구소 -

01. 조사대상 교육기관의 일반현황

- 1) 전체 학생 수 _____
- 2) 전체 교원 수 _____
- 3) 개설외국어 수 _____
- 4) 개설강좌의 소속 (예: 동양학 연구소)

개설강좌	소속

- 5) 한국어 강좌 수 _____
- 6) 학점인정 강좌 수 _____
- 7) 주별 강좌 총 시간 _____

8) 강좌당 수강 학생 수

강좌명	학생수

9) 한국어 교원 수 _____

10) 한국관련 연구기관의 유무 _____

11) 한국어 전공 및 부전공 개설 유무 _____

12) 한국학교와의 교류프로그램 유무 _____

13) 한국기관과의 교류프로그램 유무 _____

14) 한국기업체에 취업한 인원 _____

15) 한국관련 스페인어권 기업에 취업한 인원 _____

02. 교원의 일반현황

2-1. 전공

한국학	
한국사	
언 어	
문 학	
역 사	
정 치	
경 제	
기 타	

2-2. 학위

학 사	
석 사	
박 사	

2-3. 한국어 교육 경력

5년 이하	
5년 ~ 10년	
11년 ~ 20년	
21년 이하	

2-4. 주당강의 시간

5시간 이하	
6시간~10시간	
11시간 이상	

03. 학생의 일반현황

3-1. 전공

한국어	
동양학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기타	

3-2. 한국어 수강 기간

1년 이하	
1~2년	
3~4년	
5년 이상	

04. 한국어 담당교원에 대한 인식

1) 한국어 담당교원의 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한국어 담당교원의 지식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5. 한국어 교재에 대한 인식

- 1) 한국어를 위한 정규 교재가 있습니까?
- 2) 만일 정규 교재가 있다면 귀 기관에서 자체 개발한 교재입니까?
- 3) 만일 정규 교재 외에 부교재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4) 한국어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06. 한국어 교수시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예: 발음, 어휘, 문법, 회화 등)

07. 한국학 관련 과목 강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좌명	평균수강인원	학점인정여부

08. 한국학 관련 과목 교수시 한국인 교원의 비율은?

09. 한국학 관련 과목 교수시 비한국인 교원의 비율은?

10. 한국학 관련 교과목 교수시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1. 한국학 관련 교과목을 신설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12. 귀 기관에는 한국학 연구를 위한 자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3. 한국학 진흥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 한국학 진흥을 위한 연구비 수혜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없음: _____ 있음: _____

있다면 어떤 기관에서 얼마의 액수를, 얼마 동안 수혜를 받았습니까?

기관: _____

액수: _____

기간: _____

15. 한국학 진흥을 위한 한국의 지원책(국가 및 민간 지원 포함)은 인접 국가인 일본의 경우(예: Japan Foundation)와 비교하여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6. 스페인어권 국가의 한국학 진흥을 위한 한국의 지원책(국가 및 민간 지원 포함)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있다면 그 해결책과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 설문 자료는 한국학 진흥을 위한 현황의 파악과 개선책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학술적인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bstract

Los estudios de Corea en el mundo hispánico todavía se hallan en un estado inicial con una serie de problemas en formar y estructurar la infraestructura para la promoción de dichos estudios.

A pesar de la importancia consentida comúnmente entre el gobierno coreano, varios institutos y los profesores de este campo estratégicamente importante, estos pocos estudios no se acumulan, sino se desvaporan desafortunadamente.

Así hace falta concentrar los esfuerzos para promover la infraestructura de los estudios de Corea a través de los estudios básicos de las políticas de Japón y China en el mundo hispánico, los estados actuales de los estudios

de Corea en el mundo inglés como en caso de los Estados Unidos, abriendo el paso para tener una dirección apropiadamente dirigida y comprobada para promover la infraestructura de los estudios sobre Corea.

Key Words: Korea, Korean Studies, Korean Language, México, Purú, Spain /
한국, 한국학, 한국어, 멕시코, 페루, 스페인

논문투고일자: 2004. 4. 17

심사완료일자: 2004. 5. 8

게재확정일자: 2004. 5. 17

V. 참고 문헌

- 강만길(1995), 「현대 한국 사회의 변동과 한국학 연구의 방향」, 한국학 논집, Vol. 22, pp. 17-23.
- 고혜선(2003),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에 관한 역사 기술」, 라틴아메리카연구, 17권 1호, No. 1, pp. 233-258.
- 구자영(1975), 「한국에 관한 사회 과학 연구: 한국학 연구를 위한 문헌 고찰」, 도서관학, Vol. 4, pp. 1-26; 86.
- 권철근(1999), 「러시아에서의 한국학의 제 분야와 범위」, 러시아 지역 연구, No. 3, pp. 49-107
- 김기석(1999),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한 해외 소재 한국학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화 방안 연구」,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정책 연구 과제, No.: 99-9-2-4, pp. 1-159.
- 김영운(1999), 「한국학 학술 논문 목록의 DB화 예비 연구」,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정책 연구 과제, No. : 99-9-10-1, pp. 1-27.
- 김정아(2003), 「해외학계동향: 프랑스의 한국학 현황 -2」, 교수신문: 2003년 3월 17일.
- 김태진(1984), 「이태리에서의 한국학 연구」, 인문 과학 연구, 1984, pp. 179-194.
- 김현택(1999a), 「1990년대 러시아 한국학 연구의 내용과 방향」, 슬라브 연구, No. 15, pp. 1-35
- _____ (1999b), 「러시아에서 한국학 연구의 역사와 현재 상황」, 러시아 지역 연구, No. 3, pp. 1-47.
- 김형주(2001), 「해외의 한국학 연구: El colegio de México」, KF Newsletter, 9권 3호, pp. 1-2.
- 민원정(2003), 「스페인어 문화권에서의 한국학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경향 분석」, 라틴아메리카연구, 17권 1호, pp. 289-333.
- 박종욱(2003),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한국의 이미지 및 한국학 관련 설문 분석 연구」, 라틴아메리카연구, 17권 1호, pp. 259-288.

- 오만석/이길상(1999), 「한국학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 중심 대학원 모형 개발 연구」,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정책 연구 과제, No. : 99-9-7-1, pp. 1-85.
- 유근호(2001),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학 연구 동향 · 식민지 시대의 사회, 문화 연구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Vol. 33, pp. 223-243.
- 유학수(1999), 「러시아에서의 주요 한국학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슬라브 연구, No. 15, pp. 63-107.
- 이영기(1985), 「서독에서의 한국학 연구 현황」, 석당논집, No. 10, pp. 255-266.
- 이우성/정창열(1981), 「한국학의 반성과 전망」, in 이가원 et al. 유영호(1994), 『한국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pp. 1-23.
- 이혜경(1994), 『한국학 연구 현황과 문제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한국학), pp. 1-133.
- 임홍수(1998),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 실태와 문제점: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학적 분석-」, 러시아 지역 연구, No. 3, pp. 109-134.
- _____ (1999), 「러시아와 중앙 아시아 대학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의 실태와 문제점: -교과서를 중심으로-」, 슬라브 연구, No. 15, pp. 37-61.
- 최승언(1999), 「해외의 한국학 연구: 프랑스 파리 7대학의 한국학」, KF Newsletter, 7권 3호, pp. 1-2.